

ISO26000(사회책임)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황 상 규 | BSI 전문위원 | hwang@kfem.or.kr

I. 사회책임(SR)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

조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규정하는 국제적 표준인 ISO26000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15일 ISO(국제표준화기구)는 7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79%의 찬성으로 최종국제표준안(FDIS) 발간을 승인했다. 최종 국제표준이 공식적으로 제정되기까지 한 차례의 투표가 더 남아 있지만, 이제부터는 부분적인 자구 수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투표로 사실상 ISO26000 제정은 확정된 셈이다.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는데, 그동안 국가 간 이견으로 –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 진통을 겪어왔으나,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대에서 찬성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ISO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다. 이 지침서는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등 이제까지 나온 국제 지침을 총망라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적 이행 지침들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II. ISO26000 추진 경과

ISO26000 사회적 책임 표준을 만들기 위한 1차 총회가 열린 것은 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에서다. 그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ISO 26000의 개발 작업은 2005년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 표준 초안 작성의 기본방향을 정했으며, 2006년 3월 1차 작업초안(WD1)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 대해 접수된 2천여개의 의견과 같은 해 5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3차 총회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2차 작업초안(WD2)이 2006년 10월 6일 발행되었다. 2차 초안에 대해서는 총 5천여개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3차 초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 7월 23일에는 그간의 논의 사항을 종합한 3차 작업초안(WD3)이 발표되었다.

이후 5차 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 후 6차 총회(칠레, 산티아고)를 거치면서 위원회 초안(CD)로 넘어가는 것이 결의되고, ISO/CD 26000이 발간되었다. 그 후 2009년 4월 초 CD 단계에서 DIS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되어 가결되었고, 2010년 2월에는 DIS 단계에서 FDIS로 넘어가는 것이 ISO 회원국 투표로 확정되었다.

CSR에서 'C'가 빠져, ISO26000(SR)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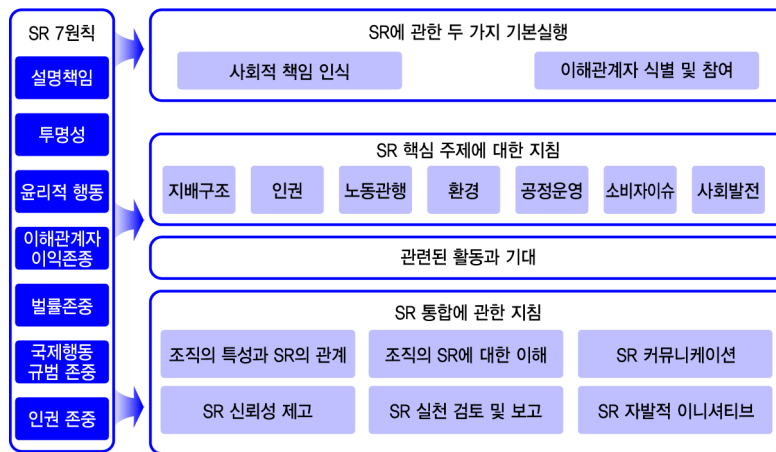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CSR'에서 기업을 뜻하는 'C'를 뺀 사회적 책임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ISO26000은 향후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일반 ISO표준과 달리 단지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이나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듯 ISO 26000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 정부, 시민 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 재고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ISO26000(SR)은 크게 7개장으로 구성된다. 1,2,3장은 적용범위와 용어와 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7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각 주제별로 설명책임이 부과되며,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윤리적 행동을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대원칙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장은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6장에서는 7개 핵심주제 및 이슈별로 기대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7장은 이행수단과 방법론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ISO26000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O 26000 구조

ISO 26000은 UN, ILO, OECD의 SR에 관련 국제 규범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SR 관련 법규 및 규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ISO 2600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Ⅲ. '요건'에 해당하는 240여개의 '기대사항(Expectations)'

ISO26000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분야별 기대사항(Expectations)이다. ISO9001, ISO14001 등 ISO 인증 규격에서는 요건(Requirements)으로 분류되는 이 내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조직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항목들인 셈이다.

ISO26000은 7개 핵심 주제 및 주요 이슈별로 240여개의 기대사항(expectations)을 나열하고 있다. 이 기대사항들은 애초에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조문(條文)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다른 구조와 전개방식을 지니고 있다. 자칫 들쭉날쭉한 내용 흐름이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ISO26000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수용했기 때문이다. 240여개의 기대사항 중 중요한 것만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SO 26000에 나타난 주요 기대사항들

(1) 조직지배구조

1. 주요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및 과정은 설명책임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2. 의사결정 및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상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4. 조직은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조직의 고위급 지위에 과소평가된 집단(여성, 소수자등)의 공평한 대우 촉진한다.
6.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일치 불일치 범위를 규명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7. 조직의 의사결정에 남성과 여성 직원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8.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권위, 책임, 능력 수준의 균형을 유지한다.

(2) 인권

1. 조직운영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인권존중을 옹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직간접적 및 무언의 공모(인권남용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는 상황)를 적극 회피하여야 한다.
4. 조직의 보안체계는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규범 및 법 집행을 위한 표준과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5. 조직은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유 메커니즘을 설립하여야 한다.
6. 치유 매커니즘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7. 조직은 취약그룹(여성, 장애인, 아동, 원주민등)등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8. 조직은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개인의 삶, 의사표현자유, 집회결사자유 등)를 존중해야 한다.
9. 조직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노동

1. 조직은 고용자로서 완전하고 안정한 고용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2. 조직은 피고용자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안해야 한다.
3. 조직은 피고용자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등 노동 조건을 국제노동기준 및 국내법에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노사정 대화 방식을 비롯하여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조직은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

1. 조직은 여러 유형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의 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수자원을 보전하고, 각종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4. 조직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조직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조직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공정운영관행

1. 조직은 조직운영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로비, 정치적 공헌,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3. 조직은 각종 계약, 투자, 금전 거래, 협력업체 선정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4. 조직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5. 조직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6. 공급망(Supply Chain)에 걸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운영을 시행한다.

(6) 소비자

1. 조직은 공정성과 투명성, 배려의 원칙으로 소비자를 대해야 한다.
2. 조직은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강요하지 않는다.
4. 조직은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극 대응하는 실행 방안을 개선한다.
7.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8.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 조직은 지역사회의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창달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부와 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조직이 속한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IV. ISO26000과 GRI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현재 ISO26000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범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 사회,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GRI는 유엔기금위원회(United Nations Foundation)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

는 연구기관으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유엔환경계획(UNEP), 미국 환경책임 경제연합(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영국공인회계사 협회, 호주 윤리적투자(Australian Ethical Investment), 일본 환경감사연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GRI 가이드라인의 범주와 항목들

구 분	범 주(Category)	관 점(Aspect)
경 제	직접 경제 영향 (EC)	고객(Customers) 협력업체(Suppliers) 직원(Employees) 자본 제공자(Providers of capital) 공공부문(Public sector)
환 경	환 경 (EN)	원료(Materials) 에너지 물 생명다양성 배출 폐수 폐기물 공급자(Suppliers) 제품과 서비스 법규준수(Compliance) 운송 종합
사 회	노 동 (LA)	고용 노사관계 보건/안전 교육/훈련 다양성과 기회
	인권 (HR)	전력과 관리 비차별 결사와 단체 협상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 및 강요노동 규율관행(Disciplinary practices) 보안관행(Security practices) 토착적 권리(Indigenous rights)
	사회 (SO)	지역사회 뇌물과 부패 정치적 기여(political contributions) 경쟁과 가격정책
	제품책임 (PR)	고객 보건과 안전 제품과 서비스 광고 프라이버시존중

GRI 가이드라인이란,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성과에 대한 보고 프레임워크(framework)로서, 보고원칙과 기업차원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균형있고 합리적인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비교성을 제고하며, 코드, 성과기준,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성과의 벤치마킹과 평가를 지원하며,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세부내용은 비전과 전략, 프로파일,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와 경영시스템, GRI 내용지표(Content Index),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성 지표에서 핵심내용이 되는 성과지표는 경제성과지표, 환경성과지표, 사회성과지표로 나뉘지는데, 이 중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의 <표>와 같다.

ISO26000의 내용과 GRI 가이드라인 내용은 서로 매우 관련성이 많다. ISO26000은 원칙과 이슈가 되는 지점들을 장황하리만큼 세부적으로 짚고 있으며, GRI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지표를 비교적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 두 지침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사회책임 이슈를 커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조직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단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지침으로 많이 활용되는 GRI G3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ISO26000 주제를 연계하여 비교해 보았다. 아래 <표> 참조.

<표> ISO 26000 사회책임 핵심주제와 이슈

ISO26000			GRI 가이드라인
핵심주제		이슈	영역 / 분야
1	조직지배구조		지배구조(프로필)
2	인권	이슈 1: 실사	인권(HR)성과지표
		이슈 2: 인권 위험 상황	
		이슈 3: 공모 회피	
		이슈 4: 고충 처리	
		이슈 5: 차별과 취약집단	
		이슈 6: 시민권과 정치권	
		이슈 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슈 8: 직장에서의 기본권	

ISO26000			GRI 가이드라인
3	노동	이슈 1 : 고용과 고용관계	노동(LA)
		이슈 2 : 고용조건과 사회보호	
		이슈 3 : 사회적 대화	
		이슈 4 : 직장에서의 보건안전	
		이슈 5 : 인적개발과 직장내 훈련	
4	환경	이슈 1 : 오염방지	환경(EN)성과
		이슈 2 :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이슈 3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이슈 4 : 자연환경의 보호와 복구	
5	공동운영관행	이슈 1 : 부패방지	경제(EC)성과
		이슈 2 : 책임 있는 정치참여	
		이슈 3 : 공정경쟁	
		이슈 4 : 영향권 내 사회책임 제고	
		이슈 5 : 재산권 존중	
6	소비자	이슈 1 : 공정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제품책임(PR)성과
		이슈 2 : 소비자 보건 안전 보호	
		이슈 3 : 지속가능한 소비	
		이슈 4 :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분쟁해결	
		이슈 5 : 소비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6 : 필수 서비스 접근	
		이슈 7 : 교육과 인식	
7	지역공동체 참여와 발전	이슈 1 : 지역공동체 참여	사회(SO)성과지표
		이슈 2 : 교육과 문화	
		이슈 3 : 고용 창출과 능력 개발	
		이슈 4 : 기술 개발	
		이슈 5 : 재산과 소득 창출	
		이슈 6 : 보건	
		이슈 7 : 사회적 투자	

V. 기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그동안 기업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판단하는 철학적 근거는 두 갈래로 발전해 왔다. 그 하나의 주장은,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한 조직이므로 활동,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주장이다. 이와 조금 다른 또 하나의 시각은, 기업의 가치와 이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이윤 추구 노력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사회책임 국제표준화와 관련한 논의는, 정상적인 사회관계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고, 반대로 기업이 실패한 곳에서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두 개의 상반된 인식과 주장이 사회적 접점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 주고 있다.

현대사회는 글로벌화와 다양화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위기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을 동시에 담고 있다.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그 기업은 글로벌 규범의 적합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신뢰성과 좋은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회 여론과 소비자,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금융권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바로 이 대목에 ISO26000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

1. 어떻게 사회책임(SR) 경영을 할 것인가?

조만간 ISO26000이 제정되면 이 표준이 사회적 책임경영 내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지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GRI 가이드라인에 의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함으로써 조직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정책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들 기관들은 이미 ISO26000(SR) 제정 논의에 밀접히 결합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들 지침들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역할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ISO26000이 제정되면 경제, 환경, 사회분야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GRI보고서 발간 기업 수는 1999년 23개에서 2006년 말 미국 95개, 영국 91개, 일본 132개 등 850개로 급증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2003년 삼성SDI,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다우코닝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포스코, BAT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이상 2004년), 한국전력, SK, 대한항공, 신한은행, 현대해상, 한화석유화학, 롯데백화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이상 2005년)에 이어 2006년들어 KT, 삼성전기, 유한킴벌리, 웅진코웨이, LG전자, 대우증권 등을 포함하여 2009년 말 현재 총 30여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ISO26000(SR)이 제정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이해관계자 참여(Engagement)가 전략이 되는 시대

전통적인 기업경영에서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라 하면,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주, 종업원, 고객, 거래업체 및 금융기관 등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업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즉, 일반대중, 지역사회, 환경단체, 언론, 학계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적 이해관계자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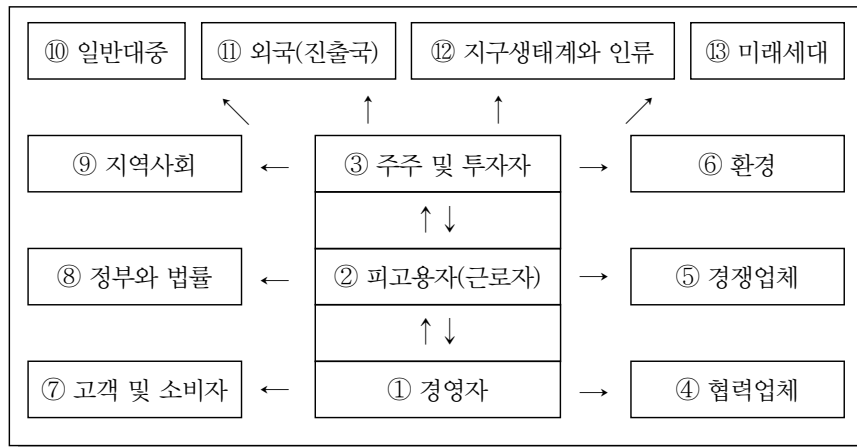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있다고 한다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내부와 외부, 직접적 이해와 간접적 이해를 모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를 모두 13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3 분야의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 이해관계의 내용과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ISO26000을 경영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주주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경영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ISO26000의 취지를 구현하는 이해관계자 협력모델은 한 두 가지로 정형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SR(사회책임) 규범이 국제화되면 지배구조, 인권, 노동, 소비자, 환경,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 등 7개 분야별로 이해관계자 협력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대표적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델을 제시해 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범적인 이해관계자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1) 황상규,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 2005, 한솜미디어, 256p

- ① 경영자 : 윤리경영의지, 건전한 재무보고, 지속가능보고서발간, 회계부정, 분식회계, 기업 내부비리
- ② 근로자 : 노동인권, 적정임금, 작업안전, 산업보건
- ③ 주주, 투자자 : 수익성, 성장률, 이익률
- ④ 협력업체 : 하청, 하도급 비리, 불공정거래
- ⑤ 경쟁업체 : 가격담합, 덤핑, 독점, 과점, 불공정경쟁
- ⑥ 환경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유해화학물질, 재활용, 에너지효율
- ⑦ 고객, 소비자 : 제품책임, 제품안전, 공정광고, 소비자보호, 소비자권익
- ⑧ 정부당국, 법률 : 뇌물방지, 부패방지, 탈세, 탈루, 법률위반
- ⑨ 지역사회 : 지역환경파괴(소음,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문제 등), 지역사회에의 이익 환원
- ⑩ 일반대중 : 환경, 소비자단체, 인권단체, 언론, 여론
- ⑪ 외국(진출국) : 정보공개, 고용노사, 경쟁, 조세, 과학기술,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이익
- ⑫ 전 세계인류 : 지구생태계 보전, 각 민족의 고유문화 전통, 평화, 생명존중
- ⑬ 미래세대 : 지속가능한 가치체계, 지속가능한 윤리체계, 최대 이윤이 아닌 최적 이윤 시스템

〈그림〉 기업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 구도



Ⅵ. 대응방안

1.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ISO26000(SR)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국제표준 개발 단계에서 ISO 26000을 우리나라 각 부문에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보다 더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표준원과 SR표준화포럼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끌어내고 여론화하는 작업은 매우 부족하다.

현재 몇몇 대규모 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조직들의 대부분은 ISO 26000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책과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ISO 26000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ISO26000(SR) 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의의가 있는 만큼 정부부처에서도 총리실 등에 전담부서를 두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회책임(SR)의 관점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특수하다. 정부는 투표로 선출된 대표(국회의원 및 대통령)에게 국민 대다수의 동의로 행정권이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은 선언적인 요구에 그치기 쉽다. 정부는 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사회적 편익이 최대가 되는 최선의 결정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ISO26000(SR) 가이드스가 제정되고, 사회적 책임 논의가 더욱 확산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이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정부 정책 입안자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ISO26000(SR) 가이드스의 원칙과 이슈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산업계의 대응방안

사회책임(SR)에 대한 논의가 CSR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추어 볼 때, ISO26000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책임(SR)에 대한 논의가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이윤극대화와 배치되거나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ISO26000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에서 보다 사회책임(SR) 논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책임”으로 되면서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줄곧 요구해오던 소비자, 노동, 기타 시민단체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의 부담이 같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듯 사회적 책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막강한 경제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기업을 비롯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는 조직들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수동적 자세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 조직의 발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그 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사회적 책임 측면 운영과 성과를 개선하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3.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사회책임(SR)이 NGO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운영 주체로서의 영향과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NGO의 경우, 공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주체로서의 영향은 미미한 대신,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이야말로 사회의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운동은 앞으로 기업의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사회 각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 논의가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그 책임성을 합리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 왜냐하면 기업은 그 사회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회의 대부분의 인력을 고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내며 다시 이를 재투자하는 등 사회생산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민운동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상화한 일이다. 특히 기업과 산업 및 금융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은 사회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논의의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야말로 우리 기업이 더욱 지속가능하게 되고,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 지고 건강해지는 길이기도 하다.